



# 해체된 낙산사에서 잃은 자아 찾기

일상을 뒤집는 논리학의 폐허들을 재결합한 재난 시물레이션 소설이다.

‘현재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 비로소 몸의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하리라.’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불과 모래의 재난을 주제로 파국의 결말을 예감한다.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존재의 고민에 휩싸인 인물들이 강연도 낙산사로 향하면서 소설은 시작된다.

원통보전의 건칠관세음보살(보물 제1362호) 위신력은 어찌된 것인가. 이미 세 번이나 불타 사라진 ‘낙산사는 불타지 않는다’는 모순 속에서 혼란스럽다. 과거의 흥터에 상처를 덧입히며 죽기 위해 살아가던 이들에게 죽음은 절망의 해결책이 아닌 과정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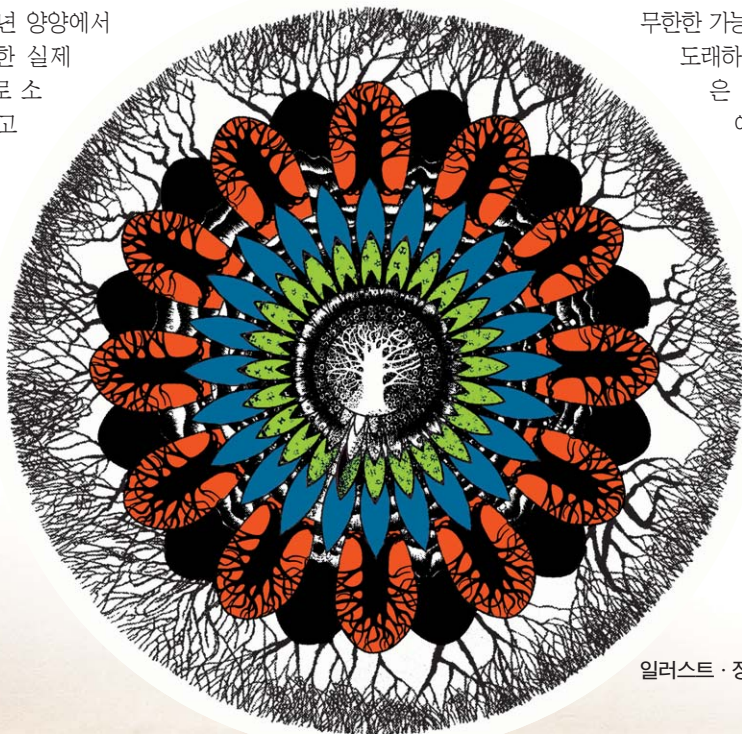
지우고 싶은 기억으로 넘쳐나는 과거를 지닌 이들이 있다. 과거에 짓눌린 현재가 작동하는 한 지배하는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쏟아지는 모래 빗속에서 화재의 기억을 안은 채 살아가던 이들이 낙산사에서 만난다. 부처의 고행과 같이 각자의 사막을 떠돌다 서서히 절망을 극복하며 실마리를 찾아간다.

‘오래된 녹차처럼 비릿한 산불 연기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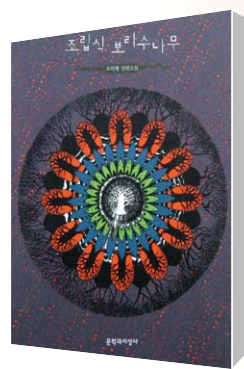
‘파종류의 등뼈를 닮은 홍련암으로 가는 길’ ‘검은 연기로 풀러나가는 금단청’ ‘춥고 처럼 흘러내리는 범종의 법의.’ 뒤뜰린 언어로 표현된 화마에 휩싸인 낙산사는 격렬하게 진동한다. 2005년 양양에서 발생한 실제 산불로 소설됐고

3년 만에 복원된 낙산사는 오온(五蘊)이 이 합집산(離合集散)하듯 윤회 전생했기에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 온전한 것이다.

이들의 낙산사 찾기는 일종의 자아 찾기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과 도래하지 않은 재난에 대



일러스트 · 정은경



조립식 보리수나무 조하형 지음 | 문학과지성사 펴냄 | 1만원

한 공포는 대안의 본질을 더욱 또렷이 한다. 인간의 불행이 극대화된 미래상에서 이상향 찾기는 절망을 절망으로 극복하며 삶을 통찰한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원통보전 들레를 서성일 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고요한 폭력은 질문의 무게로 무너지며 무릎을 꿇는다.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일어선 장계 자세로 응시한다.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낙산사는 모래 밑물에 휩쓸리고 자아는 허물어진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미래를 탐역사·탈 일상적인 시공간으로 재구성 한 조하형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조립식 보리수나무>는 제1부 짝수 장, 또 하나의 제1부 홀수 장이라는 남다른 구성으로 시간을 분리하고 반복하며 왜곡시킨다. 상상력이 재구성한 역사와 실제의 경계 허물기 사이에서 현재는 뒤뜰리고 변형된다.

가연속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구도의 철학자가 헤아린 꿈



불심초(佛心草) 소홍렬 지음 | 호미 펴냄 | 9000원

절집 밖을 서성이면 철학자가 붓대를 만나기 위해 길을 걷는다.

붓대를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나눈 대화를 헤아리는데 여덟 해가 지났다. <불심초(佛心草)>는 붓대를 더 가까이에서, 좀 더 다양한 붓대와 만나고자 하는 서원의 흔적을 소설로 탐구하고 철학적으로 되뇌인 붓대의 길이다.

논리는 진리에 이르는 방편일 뿐 제한된 논리는 무명의 원인이 된다. 서양철학에서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터득한 저자가 붓대와 대면한다. 일흔 살의 철학자는 여든 살에 열반한 붓다와의 만남을 적어도 십 년쯤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행복으로 평온하다. 붓대를 만나는 길이 마음의 논리로 정진하는 길이라면 시공간의 관리는 수행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예수의 십자가는 삼십대 젊은이가 수행한 역사지만, 석가 모니 붓다의 가르침은 여든 노인이 되기까지 갈고 닦은 지혜지요.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게 하면서 중용의 도를 선택하게 하는 반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은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극단까지 나아가게 하지요.”

중국 신강성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자는 스님과 대화를 나눈다. 우주의 마음인 ‘공(空)’과 법을 몸으로 입은 인간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라고 말한다. 우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이며 그 마음이 바로 불심인 것이다. 차장 밖으로 느릿느릿 지나가는 단조로운 풍경 속에서 붓다를 찾아가는 길, 내가 선택한 나 홀로의 길이다.

가연속 기자

## 오룡골에서 전하는 희망의 정토가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 정목 지음 자연과인문 펴냄 | 1만2000원

‘혼탁한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은 열불이다.’

경남 양산 오룡산 깊은 산중에서 홀로 열불 정진하시는 정목 스님(정토원 주지)의 수필집이다. 원효 대사의 ‘일체 경계는 일심’이라는 정토 사상을 열불과 결합해 구도의 메시지를 전한다. ‘헤아린 지식보다 순수한 감정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저자의 서연처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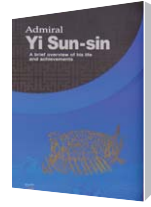
의 삶이 그려내는 정토의 구원은 본래 순수한 청정의 마음자리로 안내한다. <오룡골에는 여자가 없다>는 것은 남녀차별의 분별심이 없는 정토이기에 가능하다. 통도사에서 자장 율사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도망왔다는 다섯 마리 용이 산다는 오룡산. 산 언덕 아담한 기암 사이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주꾸나무와 인내를 상징하는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스님은 형식이 얽매이지 않는다. 낮

에 지계를 지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은 천상 능부다. 불시에 정토원을 방문한 범어사 주지스님과 나눈 환담은 경외의 대상이 아닌 우리 곁의 다정한 이웃이다. 스님은 밤이 되면 치열한 수행의 불씨를 피운다.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중요>를 비롯한 정토 사상과 열불 관련 저술서를 번역한다.

스님은 이 시대를 두고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한다. 고정관념을 깨야 하는 불교가 허위허식에 휩싸여 있는 현실을 염려한다. ‘아미타불’ 명호에 담긴 진실한 믿음으로 용맹 정진하는 희망의 ‘정토가(淨土歌)’를 들어보자.

가연속 기자

## 한국의 정신·문화 세계에 심기



'이순신' '세종대왕' 금강경독송회 기획 | BM북스 펴냄 | 각권 6000원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원효 스님 등 우리나라의 위인과 국보 및 보물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32만부 이상의 보급용 책자를 발간한 금강경독송회가 일반 서점 판매용 영문 책자를 보급한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시리즈를 기획한 금강경독송회는 보급용 보다 훨씬

정제되고 읽기 쉽게 편집된 서점용 도서를 통해 한국문화 알리기 사업을 배가한다는 계획이다.

일차발행된 <이순신 전기>는 장군의 생애를 통해 애국애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시리즈의 두 번째는 <세종대왕>. ‘한글정제’라는 대업을 이루고 민생의 풍요와 인륜에 대한 국가 기반 구축에 힘썼던 군주의 생애와 업적들을 세밀하게 정리했다.

인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3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4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정명	불교정신문화원
5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6	스님 마음이 불만해요	법륜	정토
7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8	인연	정찬주	작가정신
9	진언 다라니 수행 일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10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들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해동불교무량종 종도모집**

해동불교무량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자각, 계승, 각행원만의 근본 교리를 바탕으로 상구보리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생활 속의 적극적인 포교를 중지로 합니다

· 총재 및 조실 : 김정일 (법일 대종사)  
 · 중징 대행 총무원장 : 학성 (무량 대종사)  
 · 중앙고시법계위원장 : 박찬욱 (준파 종사)  
 · 중앙교육위원장 : 신원식 (도우 종사)  
 · 중앙포교위원장 : 이광춘 (해엄스님)  
 · 중앙사정위원장 : 김광윤 (성일스님)  
 · 비서실장 : 조종훈 (광원스님)

◆ 사암등록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소정양식 1통  
 · 승려, 교민, 전법사 신고서 1통 · 명함판 사진 7매

(재) 해동불교무량종  
 총본산 : 전남 여수시 소라면 관기1구 10번지 무량사  
 전화 061)683-7147 / 010-3114-4074

※ 인종지 사암등록증과 주지명정과 법계증서 수여증서, 승려증명 드립니다.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전자식 2종문 3종경보 **특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 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